



본회 지회 40개 돌파

- 40번째 지회는 강릉, 41번째 지회는 상주·문경 지회 -

전국 시·군 단위로 지회를 설립한다는 올해 본회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본회 40번째 지회로 등록한 강릉지회는 지난 3월19일 경포대비치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실시하고 지역 양육회원들의 단합과 발전을 결의했다.

이날 강릉지회 지회장으로 추대된 조규종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회 창립이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양육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강릉지회 사무장에는 이장성씨가 선임됐다.

한편 강릉축협 박종근 조합장은 강릉지



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강릉축협 교동지점 3층(50평)을 지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박 조합장은 축사를 통해 “지회 창립을 축하하며 강릉지회가 지역 양육산업 발

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축협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본회 김수근 회장을 비롯, 엄홍기 부회장, 강릉축협 박종근 조합장 등이 축하차 자리를 함께 했다.

본회 41번째 지회에는 상주·문경지회가 등록됐다.

상주·문경지회 지회장으로 선임된 추영인 지회장은 지난 3월23일 지역 양육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상주·문경지회 창립을 결의했다고 본회 사무처에 알려왔다.

추지회장은 “운영 부실로 지난해 문을 닫았던 새재지회에서 상주·문경 지역 회원들을 모아 지회를 창립한 것으로 일종의 새재지회 부활로 보는 편이 낫다”며 “따라서 특별히 창립총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조만간 협회 회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상주와 문경을 엮어 지회를 창립한 것에 대해서는 “지회 설립 요건인 지회원 10명 이상을 맞추기 위해 두 지역을 묶은 것으로 회원수가 확충되면 두 개의 지회로 분리시켜 개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지회장은 상주와 문경 지역 양육인 명단을 확보하는데로 회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상주·문경지회 사무장에는 박재호씨가 선임됐다. **한국양육**